

“안전하고 쾌적한 고객 지향의 녹색청사를 구현”

— 정부광주합동청사—

글 **곽훈** 한국화재보험협회 계몽홍보팀 대리



이번 호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『정부광주합동청사』에 방문하여 박회록 기술팀장을 만나보았다.

현재 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, 정부과천청사,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(광주, 제주, 춘천, 대구)로 분류되며,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마산합동청사는 건축 중에 있다.

정부광주합동청사는 광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한곳에 모아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등 13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, 대민행정 One-Stop Service 확대는 물론 청사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.

안전하고 쾌적한 청사

정부광주합동청사는 이중 골조시스템의 적용으로 횡력저항이 우수하며 내진, 내풍 특등급 설계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이다.



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방화시설, 소방시설 등 관리상태가 우수하고 반복적인 교육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근무자들의 화재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.

고층 오피스 건물의 화재특성 상 매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가상 화재진압 및 대피유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, 다양한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월2회 모의훈련 실시하고 있다.

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열기구 전원차단 확인 및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 사용 확인 등 청사 방화점검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.

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 끝에 정부광주합동 청사는 2011년 6월 정부청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¹⁾로 인정되었다.

박회록 기술팀장은 “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됨에 따라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·외에 알려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정부광주합동청사는 특히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및 시설보완 등을 강화하고 있다.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취약개소 정비보완, 수방자재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, 지진가속도계 측기를 설치하여 실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상과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값 비교를 통한 거동분석으로 실시간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해 국내 지진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친환경 녹색 청사

정부광주합동청사는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 공간 확보는 물론 일사차폐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유발

하고 있으며, 실내 아트리움으로 자연 채광을 유입하여 활기찬 내부 공간을 연출하는 등 친환경 녹색 청사를 향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그 결과 2009년 8월 대한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에서 친환경 최우수 건축물(Green Building)로 선정되기도 하였다.

2003년 신축 설계 당시 지열, 태양열,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중수, 우수, 지하유출수를 재활용한 무공해 그린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, 녹색건물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친환경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배경이라고 기술팀장은 말했다.

고객지향의 열린 청사



▲ 하늘 거울 분수

정부광주합동청사는 건물 안팎에 생물 서식공간과 공원을 마련하고, 어린이 자연체험

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위한 하늘거울 분수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고 있다.

또한 친환경 유리온실을 운영하여 국화 전시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,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 정보화 교육 및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「다시 찾고 싶은 청사」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정부광주합동청사는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청사로서,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팀방을 마쳤다. ㉞

1) 「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」이란 KFFPA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로 인정된 것으로 이 건물에는 「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」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해당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